

열정으로 한 평생 '나눔왕' 카네기



평생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강철왕 카네기.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919년 8월 11일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세도브룩에서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는다. 그가 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1865~1919)이다.

최근 카네기의 일대기를 번역해 출간한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는 성공학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카네기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앤드루 카네기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다. 그의 인생 자체가 '성공한 부자의 삶'이라서가 아니라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더 진부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본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 덤펄린에서 태어나 13세 때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동생과 함께 1848년 미국 피츠버그로 이민 길에 오른다.

피츠버그에서의 생활은 지독한 가난과의 싸움이었다. 면직물 공장, 전신국 전보 배달원, 철도회사 직원 등을 거치며 그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꼭 붙잡았다. 그게 바로 침대차 사업과 교량회사, 유정 사업 등에 대한 투자였다. 그것들을 통해 카네기는 착실히 부를 축적해 나갔다.

인생에 큰 기회는 누구에게나 세 번은 온다고 했든가. 카네기가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회는 철강 사업이었다.

새로운 시대와 미래의 트렌드를 읽으며 제철산업에 눈을 돌린 그는 1873년 몇몇 지인들과 힘을 합쳐 강철레일 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밀지 않은 미래에 '강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피츠버그의 주요 제강업체 대어섯 곳과 연합해 1886년 휴스테드 제강소를 합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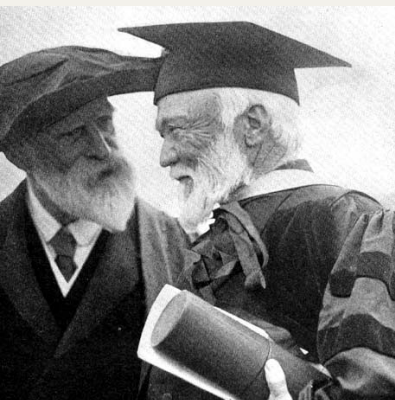
그는 나이가 이 회사를 중심으로 석탄, 철강, 광석 운반용 철도, 선박 등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철강 트러스트인 카네기 철강 회사를 마침내 설립한다.

그러나 그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지 그가 대단한 부를 축적한 재산가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66세때 세계 최대 부자의 길을 내팽개치고 18년의 여성 동안 자신이 일궈온 부를 나누는데 전력을 다했다.

'앤드루 카네기 규제기금'을 설치하고, 뉴욕에만 68개의 공공도서관 분관을 짓는 것을 시작으로 영어권 국가에 총 2천509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이른바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워싱턴에 카네기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는데, 그 규모가 전 재산의 90%에 이른다 한다.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앤드루 카네기 지음 | 박상은 옮김 21세기북스 | 1만5천원



스코틀랜드 작은 도시 덤펄린의 명예시민권을 수여받는 카네기(사진 왼쪽).

카네기의 말...말...말...

- △ 시련을 당하면 웃어 넘겨라
- △ 기회 앞에서 절박하라
- △ 배움을 탐하라
- △ 기회는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
- △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자리란 없다
- △ 친구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이니 반드시 우정을 지켜라
- △ 마음의 상처는 오직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 △ 노동자의 마음에 답이 있다
- △ 어떤 유혹에도 신념을 지켜라

평생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성공 비결도 인재를 잘 가려 뽑아 쓴 것이라고 말하는 카네기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다양하다.

이 책도 그가 주는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읽기 쉽게 편집했다. △시련을 당하면 웃어 넘겨라 △기회 앞에서 절박하라 △배움을 탐하라 △기회는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자리란 없다 △친구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이니 반드시 우정을 지켜라 △마음의 상처는 오직 자신만이 입힐 수 있다 △노동자의 마음에 답이 있다 △어떤 유혹에도 신념을 지켜라 등이다.

무엇보다도 카네기의 삶에서 참으로 감탄스러운 점은 항상 자신의 삶에서 무슨 대단하고 근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이런 그의 삶은 가진 것이 없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지,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의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성공학의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카네기의 한 평생은 잔잔한 감동과 아울러 생에 대한 도전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 데 전적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김주익 기자 jkim@buddhapia.com



생각의 역사 (한 권으로 읽는 서양철학 명저 100선) 허만원 외 지음 | 주혜란 옮김 다카미네 이치구 감수 이큰아침 펴냄 | 2만5천원

‘철학은 어렵다. 보통 사람과는 상관없는 분야다.’ 이런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모르겠다’거나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어떤 거다’ 라는 등 철학이라는 단어를 우리 생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생각의 역사>는 고대의 플라톤에서부터 현대의 마르크스까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서양철학을 시대별 흐름에 맞추어 ‘철학 명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100권의 명저들은 모두 인류의 정신사에 거대한 충격과 영향력을 행사한 것들이다.

우선 명저의 지은이가 살던 시대의 사회 분위기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은이의 출생 환경과 성장 과정 등을 소개하여 하나의 철학 사상이 어떤 바탕 위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맥락을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원전의 충실한 해설을 기본으로 철학 사상의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은 현재 우리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양철학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새로운 사상과 철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양철학의 탄생에서 성장까지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 생각하는 방법, 사회의 구성 원리 등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 결과 선배 철학자의 생각을 비판하는 과정이 무수히 반복됐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냈다. 철학사는 이렇듯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고민의 변형과 뒤집힘의 연속이다. 그리고 철학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책들은 지열한 현실에서의 고민의 결과물이다.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를 쓴 <크리톤>에는 유명한 ‘악법도 법’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나온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톤은 독배를 마시게 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뇌물을 쓴다. 크리톤은 돈을 아끼려고 친구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었다고 감옥에 찾아와 소크라테스에게 말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판이 아니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네. 열의는 알겠지만 거기에 정직함이 수반돼야 하네. 바르게 사는 사람은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여기에서 도망치는 것은 법률과 국가 전체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되네. 한 개인에 의해 판결이 멋대로 파기되는 나라는 하루도 존립할 수 없다네. 결론, 양육을 관장하는 국법은 국민의 아버지 같은 것이고, 우리는 조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네”라고 설득했다.

윤리 교과서에 나왔던 ‘악법도 법’이란 말에는 이처럼 삶의 방법과 국가관이 종합된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일반인은 철학에 관심이 있더라도 대개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이 책은 이런 막막함을 해소해 주고 실제 원서를 접하는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서양 사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영석(충남대 철학과 강사)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복상 불호 소영
장량 신장 가
의식 사 용 용 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있으며 호신용으로 최고다.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 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 최고다.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 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기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원적외선 “침” 속담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속담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얹어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설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양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 오랫동안 참신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아랫배가 냉하신 분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